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육계)

[온라인]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성명 (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답안지에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문제별로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5. 인문·체육계 문제지는 총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 [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백성의 소득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하는 것이고, 백성의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관청을 만들고 수령을 두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하는 것이고 벌을 분명히 하고 법을 제정하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하는 일이다. 모든 정사가 닦이지 않아 교화(教化)를 일으킬 겨를이 없었으니 이것이 백세(百世) 동안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다.

중국 주례(周禮)에 족사(族師)\*는 매월 초하루에 그 백성을 불러 모아 나라의 법규를 읽어 주고, 효도하고 공손하며 화목하고 우애 있는 사람을 기록하였다. 당정(黨正)\*은 4계절 중 첫 달 초하룻날에 그 백성을 불러 모아 나라의 법규를 읽어 주고 덕행과 도덕이 있는 자를 기록하였다. 주장(州長)\*은 정월 초하룻날에 그 백성을 불러 모아 법을 읽어 주어 덕행과 도덕을 심사하여 허물과 악행을 살폈다. 향대부(鄉大夫)\*는 정월 초하룻날에 사도(司徒)\*에게서 가르치는 법규를 받아 물러나와 자신이 다스리는 향(鄉)에 그 법규를 반포한다.

내가 살피건대, 주나라 때에 백성을 가르칠 때 달마다 성적을 매기고 때마다 감독하여 그 덕행에 대해 등급 매기기를 관리를 평가하듯이 하였고, 허물과 악행 통제하기를 세금 독촉하듯이 하였다. 이것이 만민을 가르치고 만민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수령은 길게는 삼 년을 있고 짧게는 일 년을 있으니 지나가는 손님이라 할 수 있다. 30년이 지난 뒤에야 교화가 젖어 들고, 1백 년이 지난 뒤에야 예악(禮樂)이 일어나는 것이니, 그렇다면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은 지나가는 손님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수령이 되고서 백성이 오랑캐나 금수의 지경으로 빠져 드는 것을 서서 보기만 하고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잠시 동안의 책무(責務)나마 다하지 않는 것이다. 예의범절을 행하도록 권장하고 향약(鄉約)을 닦도록 권하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가 있겠는가. (…중략…) 가르치지 않고서 벌을 주는 것을 망민(罔民)\*\*이라고 하니 비록 가장 나쁜 불효자라 해도 우선 그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그 뒤에 벌할 것이다.

\*족사(族師), 당정(黨正), 주장(州長), 향대부(鄉大夫), 사도(司徒): 중국 주나라의 관직명. 작은 단위를 다스리는 관직부터 큰 단위를 다스리는 관직까지 순서대로 언급되었음.

\*\* 망민(罔民): 법망을 엄하게 하여 백성이 거기에 걸리게 하는 것.

### [나]

정보 획득을 위한 동기부여, 자극, 보상은 프로그램 그 자체에 내장되어야 한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동기요인이 되지 못한다. 학습자는 정보 획득 과정의 모든 단계마다 학습행위로부터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

학습은 오직 학습자만이 가능하다. 그것은 '가르치는 교사'에 의해서 달성될 수는 없다. 교사는 배우는 일에 있어 다만 협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중략…) 배우는 과정에서 외부의 재촉이나 감독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감독은 내적 반발심과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학습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중략…) 배우는 일을 감독하는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질서 정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아주 '훌륭한 교사'는 배우는 과정에서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중략…) 배우는 일을 감독만 하려 드는 그저 그런 평범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 뿐이다. 가르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매우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가르치는 일이 어렵고 즐겁지 않은 이유는 단지 우리가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배우는 일을 감독하도록 그들을 잘못 활용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을 잘못 활용하게 된 이유는, 배우는 것에 관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일, 즉 배우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해주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교사에게 그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즉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도록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다]

옛날 도둑질을 업으로 삼는 자가 그 기술을 아들에게 모두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아들은 모든 기술을 배웠으므로 젊은 자신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고 자만하며 지냈다. 어느 날 아비 도둑은 아들을 데리고 부잣집에 숨어 들어가 아들이 보물을 쓸어 담는 사이 창고 문을 잠그고 달아나버렸다. 꼼짝없이 창고에 갇히게 된 아들 도둑은 빠져 나올 궁리를 하다가 쥐 소리를 흉내 내어 주인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는 겨우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당에 있던 주인집 식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아들 도둑은 연못 주위로 도망을 치다가 큰 돌을 집어 물속으로 던지고는 몸을 숨겼다. 쫓아오던 사람들은 연못을 에워싸고 도둑을 찾았다. 이 틈에 아들 도둑은 간신히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아들 도둑은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아버지를 원망하였다. 그러자 아비 도둑이 말하였다.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독보적인 도둑이 될 것이다. 무릇 남에게 배운 것은 한정이 있지만 스스로 터득한 것은 그 쓰임이 끝이 없다. 하물며 위급한 상황은 사람의 의지를 굳게 하고 심신을 단련시키지 않더냐. 내가 너를 위기에 처하게 한 것은 곧 너를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고, 너를 곤경에 빠뜨린 것도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미리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너는 곤경에 처하여 지혜를 얻었고 상황에 잘 대처하여 기지를 발휘하였다. 이제 스스로 그것들을 깨우쳤으니 너는 이 세상에서 독보적인 도둑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 뒤로 아들 도둑은 과연 천하에 맞설 자가 없는 도둑이 되었다고 한다.

진정한 배움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다. 천하에 몸쓸 짓인 도둑질도 그 기술을 스스로 터득한 뒤에야 천하제일이 되니, 하물며 공부든 말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가르침을 전수받는 데에 만족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데(모방)에 그치는 것이니 진정한 배움이 되지 못하고, 마땅히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는, 자득(自得)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 [라]

교육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교육을 위한 하나의 안을 디자인하기 이전에 학생들을 책임감 있고 민주적이며, 국내적·세계적 중요성을 띤 다채로운 이슈들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민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인간 삶의 그 무엇이 평등한 존중, 법의 평등한 보호에 기초한 민주 제도의 지탱이라는 과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위계적 권력에, 심지어 특정한 집단에 대한 폭력적인 적대에 그토록 쉽게 빠지게 만드는 것일까? 어떠한 힘들이 유세(有勢)한 집단으로 하여금 통제와 지배를 추구하게 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다수는 소수를 중상모략하고 낙인찍으려고 애쓰는 것일까? 이 힘들이 무엇이든 간에, 국가와 국제 세계에 대해 책임감을 지닌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대항하여 싸워야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 힘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은, 민주주의가 계급 제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 성정(性情) 내의 그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그 싸움을 수행해야만 한다. (...중략...) 어떻게 하여 사람들은 존경과 민주적 평등이라는 가치들을 내면에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지배를 추구하게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려면 우리는, 상호 존경과 상호 의존이라는 원칙에 나쁘게 작용하는 그 모든 개인 안의 힘을,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지탱하는 그 모든 개인 안의 힘을 이해하는 한편, ‘문명의 총돌’의 속성을 보다 더 심층적 차원에서 추적해봐야만 한다.

#### [마]

A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보딩스쿨(기숙사형 사립학교)에 속한다. 20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역사 동안 이 학교는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중에는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 세계적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의 작가 댄 브라운과 같은 유명 인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인재들이 단지 명문고 출신이라는 학벌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일까? 미국의 명문고등학교로 간주되는 A 고등학교가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비결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 A 고등학교의 교육 이념에서 핵심은 인성이다. 존 필립스는 1781년 A 고등학교를 세우며 재산 기부 증서에 이렇게 썼다. “교사의 가장 큰 책임은 학생들의 마음과 도덕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지식이 없는 선함은 약하고, 선함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고귀한 인품을 이룰 때 인류에 도움이 되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A 고등학교의 헌법과도 같이 여겨진다. A 고등학교의 표어라 할 수 있는 ‘Non Sibi’는 이 고등학교의 일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언어이다. A 고등학교는 지성만을 갖춘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감성을 키우는 예술 수업으로 정서를 가다듬고, 자신을 단련하는 체육 수업으로 건강한 신체로 거듭난다. 더불어 봉사활동과 다채로운

교류활동으로 세상과 호흡한다. 이를 통해 재능에 몰입하여 지성, 감성, 체력이 조화를 이룬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성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훗날 더 큰 자유의 바다를 만났을 때 두려움 없이 맘껏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학생들은 이러한 종합적인 훈련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기량, 재능을 꽃피울 수 있고 경쟁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인재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바]**  
교육은 개인의 지위 상승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교육을 통해 개인은 직무에 특화된 숙련(specific skill)뿐만 아니라, 훈련적합성(trainability)을 키우는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을 기를 수 있다. 고등학교 때 머리를 쥐어짜며 미적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모든 업무 관련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 숙련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미적분을 풀면서 훈련적합성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익히든 개인의 능력이 높아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경로는 세 가지다. 하나는 교육이 개인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킨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문맹이다. 읽을 수 있고, 기본적인 셈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문맹의 차이는 크다. 해방 직후 한국의 문맹률은 78%에 달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면 국민 전체 상위 20%에 드는 지식인이었다. 지금은 직업 지위가 높다고 간주하지 않을 우편배달원이 20세기 초기의 관점에서는 상당한 숙련을 요하는 직업이었다.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을 수 있고, 지리를 기억하고, 운송수단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읽고 계산하는 기본적인 인지 기능을 갖추게 해준다. 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두 번째 경로는 일에 직접 사용되는 구체적인 훈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통계학을 배우지 않으면 회귀분석을 할 수 없고 양적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현상을 검증하는 사회과학자가 될 수 없다. 용접훈련을 받지 않고 선체 용접 기술을 익힐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교육을 통해 시간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대화하고 협동하는 법을 배운다. 교육은 이렇게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경쟁에 유리하도록 하고 개인이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게 한다.

**[사]**  
우리의 이 나라에서도 그 정체(政體)\*가 보존되려면, 이와 같은 감독자가 언제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들이 바로 교육과 양육의 규범들이겠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야 바로 이들 중에서 누가 '다스리고', 또 누가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게 아니겠는가? (...중략...)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아무나 지어낸 아무 이야기든 닥치는 대로 듣게끔 이토록 경솔하게 내버려둠으로써,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이 가져야만 할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는 대개 반대되는 생각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지니게끔 할 것인지? 우리로선 무엇보다도 먼저 설화 작가들을 감독해야만 하겠거니와, 그들이 짓는 것이 훌륭한 것이면 받아들여되, 그렇지 못한 것이면 거절해야만 될 것 같으니. 그러나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들을 부모들과 어머니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어, 그들의 손으로 아이들의 몸을 가꾸어 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설화로써 아이들의 마음(혼)을 형성해 주도록 설득할 걸세. 바로 이런 까닭으로 이들이 처음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훌륭함(덕)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하게 지은 것들을 듣도록 하는 것을 어쩌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만 할 걸세. (...중략...)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좀처럼 흘리지 않고 의젓하며, 자기 자신과 자기가 배운 시가(詩歌)의 훌륭한 수호자인 걸로 보인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신을 단정하고 조화로운 사람으로 드러내 보인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유용한 사람일 걸세.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나 청년들 사이에서 그리고 어른들 사이에서 언제나 그런 시험을 거쳐 더럽혀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사람을 우리는 나라의 통치자 및 수호자로 임명해야 하네. 또한 그에게는 살아서도 영예가 주어져야 하지만, 죽어서도 무덤이나 그 밖의 기념물에 있어서 최대의 특전을 부여받아야만 하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외해야만 하네.

\* 정체(政體): 국가의 통치 형태.

**[문제 I]**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9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II]** [라] ~ [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배점 60점]